

# 보도자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5년 7월 6일(일)
보도일시	즉시
매 수	총 5매 (본문 3매, 웹초청장 2매 포함)

## 보사연, ‘지역보건복지 인력의 미래’ 를 주제로 『2025년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 개최

- 2016년부터 이어온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올해부터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으로 명칭 바꿔 개최
- 보사연 신영석 원장, “보사연은 콜로키움의 성과를 이은 인사이트 포럼 개최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라는 복합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갈 것”
- ‘지역 보건복지 인력의 미래’를 주제로 3개 발표 및 전문가 토론 진행...『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 시상식도 함께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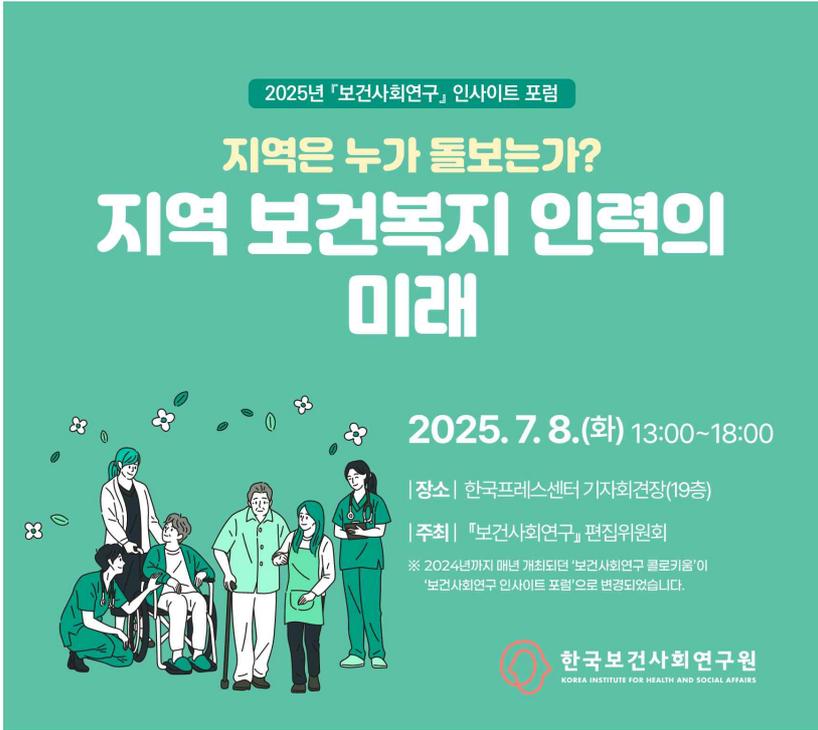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이하 보사연)은 7월 8일(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5년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1981년 창간된 보사연의 대표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의 연례 행사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는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이라는 이름으로 열려왔다. 올해부터는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다 심화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 보건복지 인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돌봄 인력 문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 행사 1부는 보사연 배재용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축하 행사와 우수논문 시상 행사를 진행한다. 주은선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의 개회사와 보사연 신영석 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 축사 후에는 우수논문 시상이 이어진다. 보건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울산의료원 응급사망감소 편익 산정 사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김진환, 경상국립대학교 정백근)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 사회 분야에서는 ▲청년의 확장실업이 소득, 사회자본, 우울을 매개하여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경희대학교 김진식)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총 3편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주제 발표는 ▲지역인구 감소 시대,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과제(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윤태호 교수) ▲초고령사회의 돌봄 안전망을 위한 복지 부문 인력 정책: 현안과 과제(보사연 강혜규 선임연구위원) ▲일본의 지역소멸과 보건복지 인재 확보 대책: 그 궤적과 전망(마쓰모토대학 종합경영학부 이성환 교수)을 발표한다.
  - 이어 지정토론에는 평창군보건의료원 박진희 원장, 보사연 어유경 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윤민석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지정 토론을 이어가며, 이후 참석자 전체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 주은선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은 “초고령화와 지역 인구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돌보는 사람’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역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돌봄 제공자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초고령화 국면에서의

지역 보건복지 인력 문제를 살펴보고, 초고령화가 가져올 돌봄 제공자의 위기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보사연 신영석 원장은 “『보건사회연구』는 그간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문제를 학술적으로 탐구하고 정책적으로 해석해온 학술지로, 2016년부터 9회에 걸쳐 콜로키움을 통해 학계와 정책 현장을 잇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인사이트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소멸이라는 복합적 변화 속에서 보건복지 인력 문제를 심도 깊게 조명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2025년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 웹 초청장 1부.
- 2. 행사 자료집 1부 (별도 첨부). 끝.



초청의 말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의사회연구'가 7월 8일에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합니다. 2025년 인사이트 포럼에서는 초고령화가 보건복지안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이트 포럼의 주제는 지역의 돌봄위기와 초고령화 국면에서 펼쳐질 '지역 보건복지인력의 미래'입니다.

'돌봄'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한다면 '돌보는 사람'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고령화와 지역 인구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돌보는 사람'의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인색했습니다. 특히 공공 돌봄체계가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한편에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돌보는 사람이 처하는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들이 잘 돌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위기 극복 방안은 없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돌보는 사람'의 위기는 곧 '돌봄의 위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인사이트 포럼에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윤태호 교수님과 강혜규 박사님 두 분이 각각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초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 사례에 대한 이성환 교수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과 연구자의 흥미로운 토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981년에 창간된 역사 깊은 학술지인 '보건의사회연구'는 2016년부터는 연 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름을 인사이트 포럼으로 바꾸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자리가 한국의 보건복지 연구에 '통찰'을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 선생님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2025년 인사이트 포럼에서는 초고령화 국면에서의 지역 보건복지 인력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초고령화가 가져올 돌봄 제공자의 위기를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학문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제대로 다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생님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8일에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2025년 6월 『보건의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주은선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00~13:30	등록	
<b>1부   우수논문 시상식</b>		사회 배재용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30~13:50	개회사	주은선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
	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시상	우수논문 시상 우수논문 선정 과정과 평가 우수논문 심사위원장
13:50~14:00	휴식	
<b>2부   주제 발표 및 토론</b>		좌장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14:00~15:45	좌장 인사	발표와 토론의 의의, 발표자·토론자 소개
	주제 발표 (각 30분)	1. 지역인구 감소 시대, 지역 보건의로 인력의 과제 윤태호 교수(부산대학교 의과대학)
		2. 초고령사회의 돌봄 안전망을 위한 복지 부문 인력 정책: 현안과 과제 강혜규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일본의 지역소멸과 보건복지 인재 확보 대책: 그 궤적과 전망 이성한 교수(마쓰모토대학 종합경영학부)	
15:45~16:00	휴식	
16:00~17:30	지정토론 (각 15분)	박건희 원장(평창군보건의료원) 어유경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민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자유토론 (30분)	참석자 전체
	17:30~18:00	정리 및 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문의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044-287-8364, editor@kihasa.re.kr